

† 찬미예수님

좋은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는 따뜻한 봄, 5월입니다. 우리 날이라며 마냥 좋았던 어린이날, 그리고 감사함을 전하며 꽃을 달아드렸던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다들 기억 나시죠?

5월은 또한 성모성월로써, 우리에게 하느님에 대한 순명과 사랑을 가르쳐주신 성모님을 특별히 더 기억하고 공경하는 달입니다. 성모님의 심신을 본받아, 선행과 기도로써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축복의 5월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2017년 5월 14일 부활 제5주일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12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4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5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7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는 것이다.” 8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9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임신부 이야기

찬미 예수님! 한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주에는 알려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글을 못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지영 골롬바 자매와 김하영 사무엘 형제가 부부로 탄생했습니다. 성당에서 관면혼인을 했는데, 아직 미혼인 하모니들을 위해 이 기회에 관면혼인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세례받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교회의 관면을 받아서 하는 혼인을 ‘관면혼인’ 혹은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혼인법에는 ‘미신자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가 비신자(타종교 신자)와 결혼할 때에, 교회의 관면을 받지 않으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곧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또는 예비신자)와 혼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 관면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한 교회법입니다.** 즉 가톨릭 신자나 그 자녀에게 배교의 위험이 있다면 관면혼인을 허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관면’이란 개념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관면’이란, 신자가 지켜야할 교회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면혼인’이란 **신자가 혼인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 신자의 신앙을 지켜주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비신자(타종교 신자)와 혼인을 해도 좋다고 교회에서 허락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미신자 장애'라는 교회법을 관면시켜주고 혼인을 허락하는 것이지요. 혼인을 하면 하모니 회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 하모니 회원들에게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모니 회원들이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 동지를 떠난다면 행복한 일이고 진정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골롬바 자매와 샘의 혼인을 진심 축하합니다.

2017년도 5월 둘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주보나눔 봉사 (5/7)

수고해주신 권창모 미카엘 형제님, 정말 감사합니다!

매운탕 점심 (5/7)

장 익 가밀로 형제님이 하모니를 위해 지난 주일 점심으로 매운탕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며 정성스레 만들어준 준 덕에 하모니가 함께 모여 맛있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생선을 제공해 준 김정호 이나시오 형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모니/뜨락회 기금마련 걷기행사 소개 (5/7)

청년회 기금마련을 위한 걷기행사 설명/소개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본 걷기행사는 예년에는 한국/주일학교 기금마련 취지로 개최되었으나 올해는 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청년회 기금마련 행사로 개최됩니다. 설명회는 지난해 후원금 지출 (한국학교) 내역과, 걷기행사 전반적 소개와 참여방법, 하모니/뜨락회 소개 및 우리의 현실/어려움, 비전, 그리고 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기금 사용 용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발표에 사용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링크로 보내 드리니 참고 하시고 우리가 주축으로 개최되는 본 행사의 취지와 기금사용 용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금마련 행사 PPT_최종본 (5.7.17).pdf

축하합니다 (5/4)

하모니 문지영 골롬바 자매님이 지난 5/4 목요일 저녁미사 중 관면훈배로 김하영님과 하느님의 축복속에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관면훈배'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청년들, 특히 하모니가 알고있음 좋은 정보, 신부님께 설명을 부탁 드렸습니다. '주임신부 이야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모의 밤 (5/13 토)

그리스도 구원 사업에 큰 용기로 순명하고 참여하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께 교회는 다른 성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높은 공경과 존경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시며 신앙인의 모범이 되시는 성모님의 신심을 본받기위한 성모의 밤 행사가 다가오는 토요일 (5/13)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모니에서 성모님께 공경의 마음을 담아 꽃 봉헌을 합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는 개인적으로 작성,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이밸리 공동체와 함께 진행하는 성모의 밤 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일시: 5월 13일 (토) 저녁 8시

어머니날 꽃 달아드리기 봉사 (5/14 주일)

다가오는 주일은 어머니날 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모니/뜨락님들이 성당의 어머니들께 정성스레 예쁜 꽃을 달아 드립니다. 꽃 달아드리기 봉사는 아침 8시 미사 30분전, 그리고 11시 교중미사 30분전에 있습니다.

가능한분들 속히 연락 주세요. 특히 아침미사 전에 봉사 가능한 님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많은 님들이 참여해 감사한 마음 가득담아 어머니들께 꽃을 달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야외미사 견기행사 홍보/후원금 접수 봉사

우리 공동체 청년회 하모니와 뜨락회를 위한 기금마련 견기행사가 6월 4일 주일 야외미사 전(오전 9:30-10:30)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5/7) 행사 관련 설명회 발표를 통해 본 행사를 전신자분들께 소개 드렸고,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5월 매 주일 오전 미사 후 (오전 9시부터)와 교중미사 30분 전, 후에 친교실에서 견기행사 홍보 및 후원금 접수를 받습니다. 앞으로 **세번의 주일 (5.14, 5.21, 5.28) 친교실에서의 홍보와 후원금 접수에 봉사하실 분들은 회장단께 연락 바랍니다.**

현재는 5/14 아침 9시 봉사자만 있으니 **다른 봉사 시간대**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은 꽃 달아드리는 봉사와 주보 나눔 봉사랑 겹쳐서 배치를 잘 해야 할 듯합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주보 나눔 봉사자 (5/14 주일)

장 익 가밀로 형제님, 감사합니다! 매 주일 돌아가면서 주보나눔 봉사를 하고 있으니 본인이 원하는 주일을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께 알려 주세요. 자발적인 봉사로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 됩시당!

하모니/뜨락 청년회 야유회 (5/20 토)

하모니와 뜨락회는 매년 분기별로 4차례의 행사를 함께하며, 우리 공동체의 다르고도 하나인 청년 단체로서 서로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공동 행사였던 1월의 동계 수련회에 이어, 다가오는 20일에는 화창한 봄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야유회를 준비합니다. 이번 야유회는 서로를 알아가고 친목을 다짐과 동시에 **연령대에 맞게 뜨락회에서 하모니로 소속 단체를 이동하는 4명의 뜨락 회원들을 환송하고, 하모니로 기쁘게 환영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들도 현 하모니 이메일을 받고 있으니 20일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뵙지 못한 님들과 새로운 님들과의 즐거운 만남을 기대하며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17년 5월 20일(토), 오후 12시

장소: Roberts Regional Recreation Area. 10570 Skyline Blvd Oakland CA 94619

<http://www.ebparks.org/parks/roberts>

부활 바자회 수익금 - 감사봉헌 및 공동 행사비용

뜨락회와 함께한 지난 부활절 바자회(4/16) 음료판매 수익금이 \$214로 정산 되었습니다. 수익금 중 \$110은 성당에 감사헌금으로 봉헌하고 나머지 \$104는 다가오는 20일 하모니/뜨락회 공동 행사 비용으로 사용 하겠습니다.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

창세기, 탈출기 성서모임을 함께할 님들을 모집합니다. 5/28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북미사제연수 (5/8-5/12)

5/8일부터 5/12일까지 개최되는 북미사제연수에 최 주임 신부님께서 참가 하십니다. 주임 신부님과 참석하시는 모든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평일미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

** **부활시기(4/16-6/4)**동안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을 '다'양식으로 합니다.

'다'양식: "십자가의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부활시기**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시기로 예수 부활 대축일 (4/16) 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6/4)까지 50일간 계속 됩니다.**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님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이름표:** 이름은 우리의 존재요, 이름을 익히는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관심과 사랑의 시작**입니다. 성당에 있을때에는 미사 전후를 비롯 항상 이름표를 부착해 주세요. 이름표 분실시에는 회장단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홍상미 세레나 [510-418-6677](tel:510-418-6677)

안해준 야고보 [415-730-0653](tel:415-730-0653)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